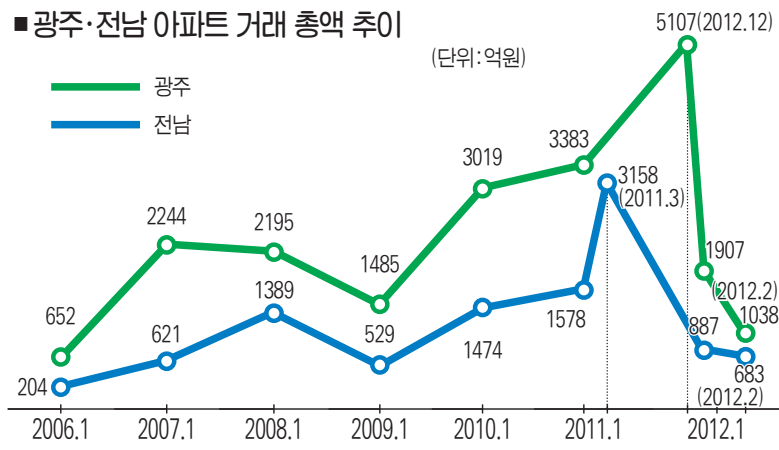


# 광주 아파트 거래 '롤러코스터'

2월 아파트 거래 1038억 금융위기 이후 최저  
작년말엔 5107억 사상최대...감세혜택 종료 탓

광주지역 아파트 거래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지난해 말 사상 최대치를 보였던 거래총액이 올해 2월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했다. 23일 부동산리서치회사 리얼투데이가 국토해양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2006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월별 거래총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광주지역 아파트 거래총액은 5107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2006년 1월 652억원보다 무려 7.8배 늘어났다. 지난 2006년~2008년까지 월별 거래총액은 대부분 1200억원~2500억원대를 보였다. 이후 2009년부터 거래총액이 늘어 2000억원 후반에서

4000억원대를 오르락내리락 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4906억, 12월 5107억원으로 크게 불어났다. 하지만 올해 들어 거래총액이 급격히 줄어 1월 1907억원, 2월 103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6년 2월 이후 최저치다. 최대치였던 지난해 말 대비 4069억원이 증감한 셈이다. 이는 계절적인 비수기과 지난해 종료된 취득세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전남지역 아파트 거래총액도 지난 2006년 1000억원 미만이었으며, 이후 2010년까지 3개월(2008년 10월 3099억원, 2009년 11월 2075억원, 12월 2702억원)을 제외하면 2000억원을 넘어서지 않았다. 지난해 아파트 거



래가 활발해지면서 2월 2260억원, 3월 3158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후 9월 2746억원, 10월 2130억원, 12월 2877억원으로 조금 주춤했지만 거래금액은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2000억원 이상 증발되면서 1월 887억원, 2월 686억원을 기록,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수준으로 떨어졌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올 2월 광주·전남 아파트 거래총액이 크게 감소한 것은 지난해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와 계절적인 비수기 영향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며 "총선 이후 기대감 등으로 3~4월에는 거래총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정년 없고 고소득... '재무설계사' 인기

보험설계부터 재정 컨설팅까지 전문직 발돋움  
삼성화재, 월평균 소득 412만원 1740명 역대 연봉

전국 상위 10위 안에 꼽히는 오디오대리점을 운영했던 김대열씨는 IMF로 경영난을 겪은 뒤 사업을 정리하고 자본금 없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보험영업에 뛰어들었다. 여수에서 제일 발 굵은 '삼성화재 김대열'로 소문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여수시민을 위한 '재무주치의'로 활동하고 있다. 고소득에 정년없는 직업이라는 점 때문에 보험설계사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다. 최근에는 보험설계는 물론 고객

의 재정상태를 진단하고 그에 맞는 위험컨설팅은 물론 재무설계 컨설팅까지 하는 전문직 RC(Risk Consultant)로 발돋움하고 있다. 23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2011년 말 현재 전속 표준조직의 월평균 소득은 약 346만원으로 조사됐다. 신입 기간인 1년 미만 활동자를 제외하고 보면 월평균 소득이 412만원에 이른다. 특히 2011년 기준 연소득 1억원 이상 받은 RC는 1740명으로 전체 2만6000여명 중 5.9%를 차지했다. 3억원 이상 고소득 RC도 23명

에 달한다. 이들이 꼽는 보험설계사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별도의 자본금이 필요 없고, 경력과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는 데다 정년 퇴직과 관련없는 평생직업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구직이나 재취업에 나서는 이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보험영업을 하고 싶다면 회사 인지도는 물론 상품과 서비스, 교육 시스템 등이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요즘에는 100세까지 보장되는 초창기보험, 연금 등 보험가입 후 최소 몇 십년 이후부터 보장받는 상품이 많은 만큼 회사의 재무 안정성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이문미기자 emlee@kwangju.co.kr

# 이사철 무색 3월 전월세 거래 급감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이 12만6800건으로 지난해 3월보다 10.4% 감소했다. 국토해양부는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을 집계한 결과 수도권은 8만5700건(서울 4만2000건), 지방 4만1200건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수도권은 10.3%(서울 10.8%), 지방은 10.7% 각각 줄었다. 서울 강남3구의 거래량은 감소폭은 14.5%에 달했다. 1분기 전체로는 전국 전월세 거래량이 34만15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감소했다. /연합뉴스

# "스마트폰을 체크카드처럼"

실시간 계좌이체 도입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할 때 플라스틱 카드가 없어도 스마트폰만으로 은행 계좌에서 실시간 이체를 할 수 있게 된다. 23일 휴대전화 결제 업계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이 다날, KG모빌리언스 등과 손잡고 국내 21개 은행계좌 및 17개 금융투자회사의 CMA 계좌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24시간 계좌이체 결제를 도입한다. 기존의 휴대전화 결제는 후불 형식으로 한 달 휴대전화 요금에 포함해 청구됐다. 실시간 계좌이체가 가능해지면 스마트폰을 체크카드처럼 쓸 수

있다. 다날 이용자는 '바통' 애플리케이션(앱)과 '은행공동 계좌이체 PG 서비스' 앱을 내려받아 원하는 은행계좌를 바통에 등록하면 스마트폰 계좌이체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바통 앱에서 일회용 바코드를 생성해 가맹점 바코드 리더기로 인식하면 등록된 계좌에서 구매 금액이 자동으로 출금된다. KG모빌리언스도 실시간 계좌이체를 골자로 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개시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애플 앱을 내려받고 인증을 거쳐 은행 계좌를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이용자는 개인설정 메뉴에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등록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기운 펴펴~ 완도 전복 드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직원이 완도산 전복을 선보이고 있다. 백화점은 지역 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26일까지 '완도 수산물 대전'을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지역상장사, 순익 줄었지만 배당 늘어

배당성향 전년보다 4.48%P 증가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상장법인들은 당기순이익이 대폭 줄어들었지만 배당성향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에 대한 배당금 총액 비율로 기업이 벌어들인 돈 중 얼마를 배당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23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광주·전남 지역의 12월 결산법인 13개

사 가운데 현금 배당을 실시하는 7개사를 분석한 결과 2011년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1060억원으로 전년 대비 25.67% 대폭 감소했지만 배당성향은 20.05%로 전년 대비 4.48%포인트 증가했다. 배당금총액은 213억원으로 전년보다 4.29% 줄었다. 배당성향이 가장 높은 기업은 조선내화(22.54%), 부국철강(20.26%), 동아에스텍(17.91%), 화천기공(14.20%) 순이었다. 당기순이익의 대폭 감소에도 배당금수준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주가 대비 배당금을 결정하는 시가배당률도 0.08%포인트 감소한 2.10%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외국인 배당금 총액은 전년도(14억9000만원)보다 14.05% 감소한 12억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배당금 총액의 6.03%를 차지했다. /이문미기자 emle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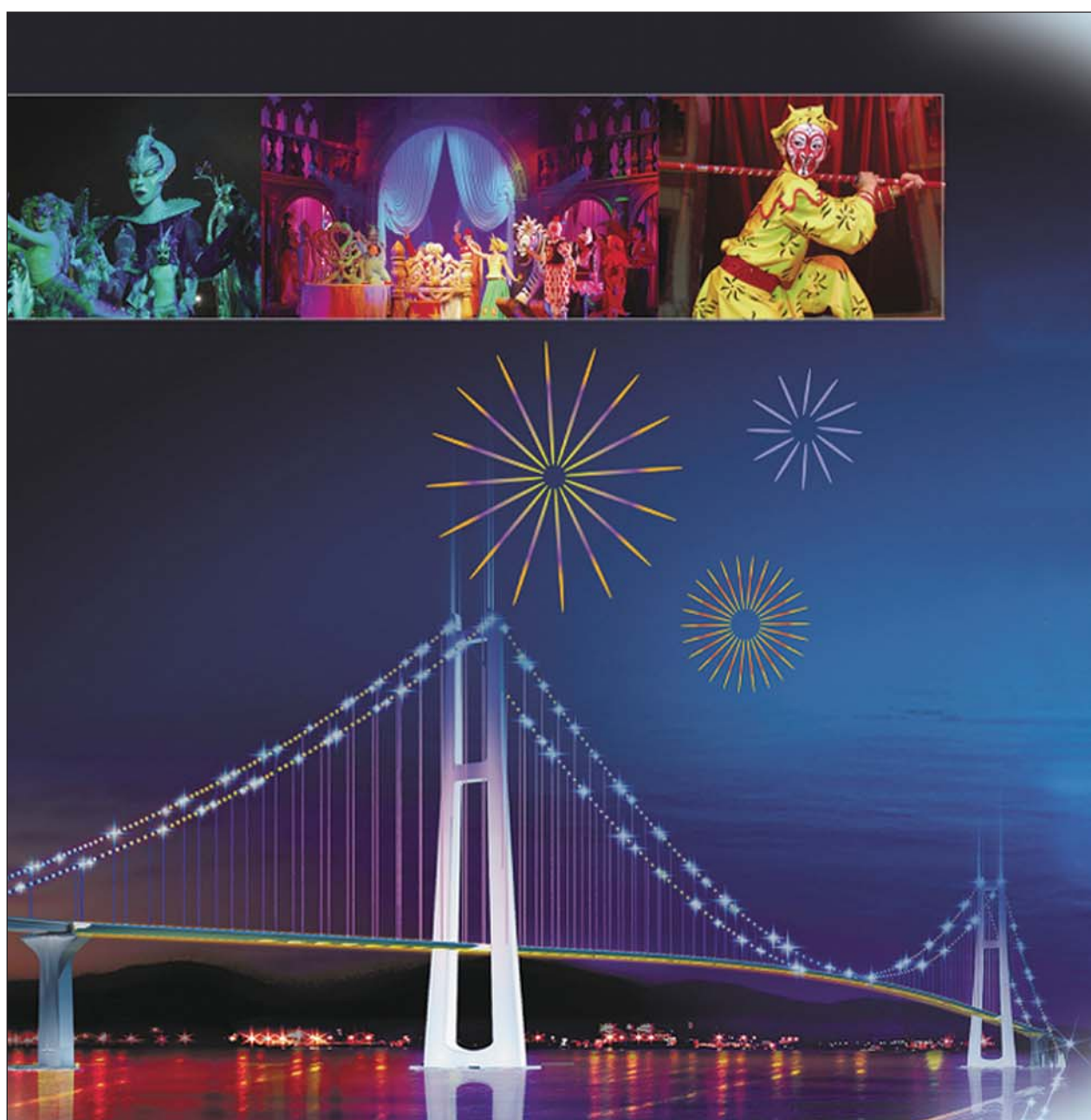
출 연체율은 대출규모 감소로 0.06%포인트 올라 7.23%로 나타났다. 연체 금액은 전월 대비 소폭 증가했다. 대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2월 말 현재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잔액은 전월보다 6000억원 가량 증가한 98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가계대출은 0.66% 증가한 69조4000억원, 기업대출은 0.52% 늘어난 29조3000억원으로 파악됐다. 2010년 10월 이후 약관대출에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한 제도적 효과 등으로 연체율이 많이 떨어지고 하향안정화 추세에 있다고 금융권이 설명했다. /연합뉴스

# 보험업계 대출 연체 '안정세'

3개월 연속 0.81%

금융시장 불안에도 보험업계 대출채권 연체율은 계속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월 말 현재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연체율이 3개월 연속 0.81%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전년 동기보다는 0.40%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연체율은 2009년 1월 말 3.94%까지 치솟고서 계속해 하향안정화하는 추세를 보였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50%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48%로 1월과 같았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1.53%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떨어졌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2.21%로 같은 기간에 0.02%포인트 하락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



# 광주일보 창사60주년을 축하합니다

- |                      |                          |
|----------------------|--------------------------|
| 국회법제사법위원회<br>위원장 우윤근 | (사)광양시새마을회<br>회장 김선근     |
| 광양시<br>시장 이성웅        | 동광양농협<br>조합장 서정태         |
| 여수광양항만공사<br>시장 이상조   | 사랑병원<br>임직원 일동           |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br>직원 일동 | 광양노인요양병원<br>임직원 일동       |
| 광양교육지원청<br>교육장 김선홍   | 포스코페로니켈법인 SNNC<br>사장 이상홍 |
| 광양상공회의소<br>회장 김효수    | 광양만권시설관리(주)<br>대표길용구     |
| 광양항운노조<br>위원장 서성기    | (주)대광<br>임직원 일동          |